

사회

Social Affairs

3 광주일보
제17542호 2006년 9월 2일 토요일

청명한 가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맑음.

9월 2일 (운 7월 10일)

광주	21~30℃
목포	22~29℃
여수	22~28℃
완주	22~29℃
구례	22~32℃
해장고	21~30℃
남해	20~30℃
홍천	22~29℃
순천	20~31℃
영암	21~30℃
진안	22~31℃
보성	21~30℃
영광	21~29℃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0.5~1.0m

서해남부 먼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먼바다
북동~남동풍
파고 1.5~2.0m

목포 밀물 07:48 썰물 01:18
여수 밀물 02:32 썰물 08:58

기상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일)	4(월)	5(화)	6(수)	7(목)	8(금)
날씨						
최저/최고	21/30	21/30	20/28	19/28	20/29	20/29

9월날씨 평년보다 1~2도 높다

목포 8월 기온 100년만에 가장 무더워

기상청은 '1개월예보'(9월1일~9월30일)를 통해 "9월에는 평년(14~23도)보다 기온이 높겠으나, 강수량은 평년(113~244mm)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일 밝혔다.

한편 올해 8월 한 달 동안 목포지역은 평균기온이 100년 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목포의 지난 8월 평균기온은 28.0도로, 지역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합천(27.4도), 부산(27.3도) 등 8개 지점도 각 지역 관측소 창설 이래 월 평균기온이 최고치를 넘었다.

진주(8월9일 37.5도)와 원주(8월15일 36.4도)는 관측소 창설 이래 일 최고기온을 기록했고 수원(8월8일 35.9도)과 군산(8월4일 35.7도)은 과거 최고치와 동일한 일 최고기온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 8월 전국 평균기온은 26.5도로 1994년 기록한 26.8도에 이어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더웠던 한 달이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성인 PC 영업장부 '관' 의미 뭉개 공무원-업주 검은거래?

경찰, 단속기관에 돈 상납가능성 수사

경찰이 압수한 사행성 PC방 장부에 '관'이라고 쓰인 지출 항목이 적혀 있어 관공서와 업주 간 금품수수 의혹이 일고 있다.

1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사행성 PC방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PC방 업주 노모(32)씨를 검거하고, PC와 영업 장부 등을 압수했다.

노씨는 답안 3명과 함께 지난 5월 24일부터 광주 시 서구 금호동 Y PC방에 사행성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된 PC를 들여놓고 영업, 2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씨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장부를 검토하던 중 미심쩍은 점을 발견했다. 식사비·관리비 등 사용처와 날짜·액수 등이 꼼꼼히 적힌 장부에 '관'이라는 지출 항목이 3차례 적혀 있었던 것.

경찰은 노씨가 단속 기관에 돈을 상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추궁했으나, 노씨는 "동업자들의 양해 없이 개인적으로 썼거나 돈을 많이 잃은 단골들에게 '관리'(管理) 차원에서 지출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관'이 공무원 등을 의미하는 '관' (筭)일 수도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씨가 상납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서 '관'에게 돈이 지출된 날짜 전후 노씨의 휴대전화 송·수신 내역과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화제 추적 - 광주 남녀 41명의 뱃살 탈출 도전기 (3)

'90일 전쟁' 24명 중도 포기 17명은 평균 2.26kg 줄였다

'뱃살'과 처절한 시투를 벌였던 사람들이 마침내 '전쟁'을 끝마쳤다. 지난 6월부터 서구보건소의 '제2기 뱃살을 줄여라'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 희비가 엇갈렸다. 훌쩍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해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낙오자도 많았다.

'뱃살 탈출'에 도전한 41명 중 17명만이 끝까지 남았다. 나머지 24명은 '체지방 최종 측정일'인 지난달 31일 측정장소에 서구보건소에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프로그램 시작 석 달 만에 다가온 '운동의 시간'. 체중과 체지방률, 복부 지방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자 회원들은 격정 반, 기대 반에 숨을 가다듬었다.

"만약 몸무게가 좀 늘어도 어제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이에요. 절대 제 원래 몸무게가 아닐 겁니다." "오늘 아침에 밥을 좀 많이 먹었어. 괜히 많이 나오는 것 아냐."

측정 결과, 17명 중 14명이 몸무게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철(26·키 178cm)씨는 지난 6월 2일 첫 측정 때보다 무려 8kg(106kg→98kg)이나 빠졌다. <표> 이씨는 "드디어 0.1에서 해방됐다"면서 함박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박인순(여·42·키 152cm)씨도 59.8kg에서 52.1kg으로 7.7kg 감량하는데 성공했고, 김영숙(여·48·키 148cm)씨는 4.3kg(56.4kg→52.1kg) 빠졌다. 하지만 체지방률이 줄어든 사람은 11명에 그쳤다. 몸무게를 빼는데 성공한 3명의 체지방률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몸무게 3.3kg을 감량한 박준순(여·65·키 162cm)씨는 체지방률이 2.2% 증가했고, 2kg을 뺀 반현미(여·40·키 162cm)씨도 0.3% 늘었다. 복부지방률은 12명이 낮추는데 성공했다.

서구보건소는 최종 측정에 응한 17명이 평균 2.26kg의 몸무게를 감량했고, 체지방률은 1.03% 줄었다고 밝혔다. 복부지방률은 평균 0.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진승현(여·28·간호 8급)씨는 "회원들이 꾸준한 노력을 통해 몸무게와 체지방률을 크게 낮췄다"면서 "하지만 회원 모두가 아직도 복부지방률은 여전히 정상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꾸준히 몸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보건소가 지난 6월부터 3개월 과정으로 시작한 '제2기 뱃살을 줄여라' 프로그램에는 허리둘레가 36인치 이상 남성 6명, 32인치 이상인 여성 35명 등 모두 41명이 참가했다.

/임주희기자 jhlim@kwangju.co.kr



서구보건소의 '제2기 뱃살을 줄여라' 프로그램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서구보건소 2층에서 회원들이 체지방률을 측정하고 있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 '뱃살탈출' 실패 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가했어도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살을 빼지 못했다. 살이 빠졌더라도 체지방은 오히려 늘어난 경우가 많았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 몸무게가 77.1kg이었던 김모(49·키 173cm)씨. 김씨는 평소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김씨의 몸무게는 최종 측정결과 77.6kg으로 나타났다. 체지방률

남자는 술·여자는 간식 최대 '걸림돌' 하루 40분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효과

(26%)과 복부지방률(0.93%)도 각각 26.8%와 0.94%로 증가했다.

김씨는 평소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았고 김씨의 몸무게는 최종 측정결과 77.6kg으로 나타났다. 체지방률

체지방률은 37.8%에서 40%로 2.2% 늘었다. 복부지방률도 0.99%에서 1%로 증가했다. 진승현씨는 "박씨가 운동 대신 음식을 먹지 않는 방법으로 살을 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구보건소 진승현씨는 "튀김류의 음식과 술을 좋아하는 회원들도 다이어트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걷기 운동은 속도보다 시간이 중요한 만큼, 최소 40분은 걸어 등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주희기자 jhlim@kwangju.co.kr

市·道 교육위원회 전반기 의장 광주 이승연·전남 유제원씨 선출

1일 출범한 제5대 광주시교육위원회 전반기 의장에 이승연(63) 위원이, 부의장에 전원범(62)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전남도교육위원회 전반기 의장으로 유제원(61) 위원이, 부의장으로는 민병홍(46)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광주시교육위원회는 1일 소속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 선거를 실시, 4표를 얻은 이승연 위원을 임기 2년의 전반기 의장으로 뽑았다. 또 이어 열린 부의장 선거에서 4표를 얻은 전원범 위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전남도교육위원회도 이날 소속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반기 의장 선거를 실시, 5표를 얻은 유제원 위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뽑았다. 민 부의장은 5표를 얻어 선출됐다.

/최재홍기자 lion@kwangju.co.kr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학교 기자재 납품비리 市교육청 관리능력 부재"

최근 학교 기자재·비품 납품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처방해야 하는 광주시교육청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주일 동안 잇따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시교육청은 단 한차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을 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즉각 반박이나 해명을 하지 않아 위기대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일부에서는 김원본 교육감의 임기만료를 두 달 앞두고 극심한 '레임덕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광주 모 중학교 교사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일선 학교가 안정을 찾아야 할 판에 납품비리 학교에 만연한 것처럼 비쳐 안타깝다"며 "시교육청 간부들과 실무진들은 광주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비리 척결의 계기로 삼아야겠지만, 무작정 의혹만 제기하는 것도 광주교육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교육위 의장 프로필 /

**9급 말단으로 공직시작 市 부교육감까지 지낸
광주시 이승연 의장**

9급 말단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3급)까지 지낸 임직전적 인물. 매사에 적극적이고 솔선수범하며 일처리가 매끄러워 평가를 받았다. 솔직하고 담백한 성격에다 포용력이 넓고 신랄도 두렵다. 지난 7월31일 치러진 교육위원 선거에서 409표를 얻어 7명의 위원 중 최다득표했다.

▲63 ▲신안 ▲광주 고 (3회), 광주대 행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광주 서부교육청 관리과장, 동부교육청 관리과장,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사국장, 광주시교육청 기획관리과장,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세종교장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정보화 사업 행정조사위 이끌어 예산절감 기여

전남도 유제원 의장

제3~4대 전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솔선수범하는 교육위원회 위상 정립에 헌신했다. 정보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 교육위원중 눈치보지 않고 바른 말을 잘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위원으로 정평이 나왔다.

▲61 ▲나주 ▲광주기계공고 ▲전남대 문리대 ▲제3·4대 전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제4대 전남도교육위원회 후반기 부의장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전남대학교 자연대학 동창회장 /최재홍기자 lion@kwangju.co.kr

나원침 <6917>



연예2차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 세대 중 35세대 353세대
문의 (062)366-4220

잇단 익사 어린이 등 5명 숨져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 3명이 한꺼번에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오전 10시50분께 진도군 조도면 죽향도리 등대 앞바다에서 조모(8·진도 모 초교 1년)군이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인 목포해양경찰이 발견했다.

이에 앞서 전날 밤 9시50분께에는 이곳에서 9km 떨어진 조도면 맹성리 당도마을 앞 바닷가에서 강모(8)군과 동생(6)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1일 오전 11시께 영광군 염산면 지선 향포구 앞 해상에서 조개를 캐던 권모(여·62)씨가 물에 빠져 숨졌고, 이날 오전 9시30분께에는 목포시 대반동 조선내화 목포공장 앞바다에서 이모(여·27)씨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익사 사고가 잇따랐다.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야생동물 피해 지원 보상 광양시의회 조례 발의

전국적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광양시의회가 야생 동물로 피해를 본 농민들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의회 이돈구 의원 등 8명이 최근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임산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액의 80%, 최고 500만 원까지를 지원하고 인명 피해 보상금은 최고 700만 원까지, 사망시에 1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양=김춘희기자 chkim@kwangju.co.kr

조카에게 취업사기 친 '나쁜 삼촌'

○조카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삼촌이 경찰에 달미.

○1일 나주 경찰에 따르면 이모(49·광주시 북구 임동)씨는 지난 2004년 2월께 나주시 삼포면에 사는 조카 이모(34)씨의 집에 찾아가 "이 사람 중대기업 이사가 있는데, 소개비를 주면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속인 뒤, 조카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3천400여만원을 가로챘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가로챈 조카의 돈을 모두 유출하고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최승희기자 srchoi@kwangju.co.kr